

공터 된 産團 '눈물의 세일'

시·군, 고금리 수백억원 빌려 조성했지만 분양률 저조

전남도, 보조금 추가·기업 유치

저성장 불경기 기조 속에 지역 내 저조한 산업단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전남의 시·군들이 보조금 추가 지급, 1부서 1기업 유치 등 '눈물의 세일'에 나선다. 전남도는 이들 시·군과 투자유치, 권역별 항우기업 초청 및 현지 방문 등을 함께 하기로 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1월말 기준 분양률이 전체의 절반이 되지 못한 지역 산업단지에는 목포 대양산단, 나주 혁신산단, 장흥 바이오산단, 강진 환경산단, 영광 대마산단 등 5곳이다. 지난해 선전하며 84%까지 분양률을 끌어올린 통합평산단은 제외됐고, 목포 세라믹산단, 담양산단은 조만간 이들 '부진 산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 시·군의 역량만으로는 산단 분양률 향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해당 시·군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갖기도 했다. 높은 금리로 외부 자금 수백억원을 빌려 각 시·군이 조성해 준 산단이 공터로 남아있는 현실을 보다 못한 전남도가 적극 개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시·군이 이날 회의에서 내놓은 대책은 크게 기업 유치 실과 동원 및 우수부서 포상제 실시, 보조금 등 지원 확대, 친 기업 활동 전개 등으로 분류된다. 목포시는 98만1000㎡ 중 18만3000㎡가 분양된 대양산단 분양률(18.7%)을 끌어올리기 위해 1부서 1기업 유치 활동, 입주기업당 3억원 한도 일부 이자 감면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125만8000㎡의 면적 중 고작 10만1000㎡만 팔려나간 혁신산단(8.0%)에 대해 나누시는 법인·소속세 감면, 입지 및 시설 보조금 지원 등을, 11.2%(5만4000㎡)에 마른 환경산단(47만9000㎡)의 분양률 향상 대책으로 강진군은 기업유치 우수부서 포상제, 기업인 초청 팸투어 및 출항기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내놓았다.

이홍재의 세상만사 ▶2면
전파관리소 수년간 불법 감청 ▶6면



신팔도유람-경남 통영 장사도 ▶18면

분양률 50% 이하 산단	
목포 대양산단	18.7%
나주 혁신산단	8%
장흥 바이오산단	17%
강진 환경산단	11.2%
영광 대마산단	45.2%

장흥군도 지난 2010년 분양에 들어가 아직도 10%대의 분양률에 그치고 있는 바이오산단(17.0%)을 위해 1부서 1기업 유치, MOU 체결 후 미실현 49개 기업 접촉,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4만4000㎡ 중 47만2000㎡를 팔아 45.2%로 그나마 성과를 내고 있는 대마산단과 관련 영광군은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투자협약 체결기업 밀착관리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들 시·군과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3월 투자유치 지원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재 3억원의 입지 보조금을 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각 시·군이 수요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사전조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된 산단을 조금이라도 더 분양하기 위해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광주선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5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회견을 갖고 '광주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더민주는 이날 광주 선언을 통해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호남 대권주자 키우겠다" 김종인 광주선언

더민주 광주 민심잡기 햇볕정책 수정 시사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5일 야당의 심장부이자,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를 찾아 뒷발 민심잡기를 위한 행보를 벌였다. 이번 광주방문은 지난달 31일 이후 두 번째로, 박영선 비대위원도 함께 광주를 찾았다.

광주는 더민주의 뒷발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지만,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과 수도권 싸움을 치열하게 펼쳐야 하는 구도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김 대표의 광주 방문이 또 한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서를 반영하듯 김 대표는 이날 '광주선언'을 통해 "차기 정부를 준비하는 명실 상부한 대안정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또, 광주를 '둔든한 아버지의 품'에 비유한 뒤 호남 민심에 반성과 사과 의 말을 거듭하며 민심잡기에 주력했다.

김 대표는 이날 "무등산이 뿜어내는 정권교체의 열망에 비해 우리는 너무 안일했다. 무능과 부패, 온정주의에 기대어 광주 시민에게 실망을 했다"며 "시끄러운 소수의 정당이 돼 소리 없는 다수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깊게 성찰하고 반성한다"고 자성했다.

그는 이어 "항상 우리의 출발은 광주였다"면서 "DJ 이후 호남 출신의 유력한 대권 주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사실"이라고 말했다. "호남은 어렵고 보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기정 의원이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됐다. 더민주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북 갑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경쟁력이 많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략공천 배경을 밝혔다. 북갑 전략공천 후보로는 더민주의 영인인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김민영 전 참

주선언'을 통해 "차기 정부를 준비하는 명실 상부한 대안정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또, 광주를 '둔든한 아버지의 품'에 비유한 뒤 호남 민심에 반성과 사과의 말을 거듭하며 민심잡기에 주력했다.

김 대표는 이날 "무등산이 뿜어내는 정권교체의 열망에 비해 우리는 너무 안일했다. 무능과 부패, 온정주의에 기대어 광주 시민에게 실망을 했다"며 "시끄러운 소수의 정당이 돼 소리 없는 다수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깊게 성찰하고 반성한다"고 자성했다.

그는 이어 "항상 우리의 출발은 광주였다"면서 "DJ 이후 호남 출신의 유력한 대권 주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사실"이라고 말했다. "호남은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한 곳이고, 역사의 고비마다 희생과 헌신을 다해 왔지만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아픔을 겪었다"고도 털어놴.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호남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더민주에서 '호남불가론'은 사라진 용어가 될 것"이라며 "호남의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인들이 역동적이고 포용력 있는 대권 주자로 성장할 것이다. 이들이 차세대 지도자가 되어 제2, 3의 김대중으로 자라날 것"이라며 호남 대권주자론을 피력했다. 이는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강조한 '뉴 디제이(김대중)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김 대표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햇볕정책 보완을 거듭 시사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이 다가올 통일시대를 혼란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일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통일대박"과 같은 막연한 통일정책이 아니라, 확고한 평화통일의 지향 아래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김 대표의 '광주선언'은 그동안 선거때만 되면 패배한 뒤 호남에서 사과와 반성만을 해온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데다, 햇볕정책 수정 시사와 유능한 경제당만 강조하는 등 특별한 메시지가 없다는 평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강기정 공천 배제...광주 북갑·서울 전략공천

더민주, 양향자·김상곤 등 거론 국민의당 현역 2명 컷오프 전망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이 본격적인 공천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전남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태풍도 본격화되고 있다. 더민주는 25일 광주 북갑과 서구 을 후

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의 지역구인 서구 을은 더민주 혁신위원장을 지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전략공천설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더민주 공천관리위원회가 3선 이상 중진 50%와 초재선 30%를 대상으로 경쟁력 평가 및 윤리 심사에 나서고 있어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 2~3

명예의 추가 공천 배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도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더민주와 혁신 공천 경쟁에서 밀릴 수 없기 때문이다. 공천 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 2명 정도를 컷오프 시키지 않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 국민의당은 정치 신인 가산점을 기존 최대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어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명예의 추가 공천 배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도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더민주와 혁신 공천 경쟁에서 밀릴 수 없기 때문이다. 공천 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 2명 정도를 컷오프 시키지 않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 국민의당은 정치 신인 가산점을 기존 최대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어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영남권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C 200 1,991cc, 1,9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6.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 200 Avantgarde 1,991cc, 1,9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6.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 220d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 220d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 250d 4MATIC 2,143cc, 1,7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5.5km/ℓ (도시연비: 13.7km/ℓ, 고속도로연비: 18.4km/ℓ), 2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26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수행 연비가 차이가 있습니다.